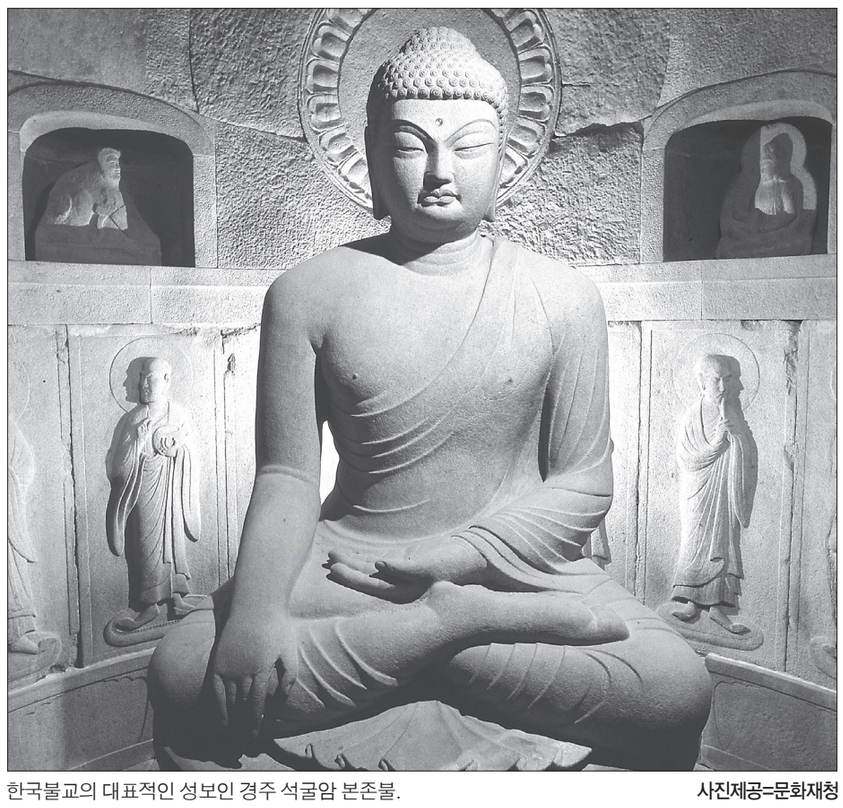
“불교는 현재 살아있는 전통이자 미래”



토픽 한국불교사
여문책 펴냄
김용태 지음/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성보인 경주 석굴암 본존불. 사진제공=문화재청

36개 테마로 풀어낸 1700년 전통 한국불교사
다양한 스펙트럼에 비친 한국적 심성과 가치관
한국 불교의 본래 면목을 만날 수 있는 교양서

한국 불교 전문가인 김용태 교수가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 〈토픽 한국 불교사〉를 펴내게 되었다. 36개의 흥미로운 토픽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를 두루 살펴보는 이 책은 딱딱한 개설서나 통사가 아니다. 불교에 대해 익숙한 사람이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우리 역사와 문화서 상당한 지분을 갖는 한국 불교 본래면목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교양서다.

한국의 명산 어디를 가든 만날 수 있는 고찰과 빛나는 불교 문화유산들은 1700여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말해주듯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원효 의상 의천 등 유명한 대사들과 임진왜란 때 맹활약을 펼친 사명당 같은 의승군의 존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석굴암, 팔만대장경,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문화재들에 대해서도 자부심과 깊은 애정을 갖게 마련이다. 요즘에는 붓다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배우기 위해 기꺼이 ‘템플스테이’를 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나아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서양인들의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오랜 세월 부당한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결코 그 빛이 바래지 않은 자율과 평등, 이타주의, 비폭력과 생태주의, 조화와 상생 같은 불교적 가치관의 힘 때문일 것이다. 불교는 단순히 무(無)공(公) 업(業) 윤회 전생 인연 수행 해탈 열반 서방정토 극락 같은 단어들의 카테고리로만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크고 깊은 세계다. 또한 오래전 역사적 사실이나 심오한 교학에 대해 많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불교의 핵심에 닿기 어려울 것이다. 화두를 들고 참선에 드는 것은 멋있어 보이지만 일반인은 따라 하기도 쉽지 않은 수행법이다.

불교는 너무나 거대한 산이다. 종교 같기도 하고 철학 같기도 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기도 하지만 ‘돈오점수’ 대 ‘선교겸수’, 교종 대 선종 등의 골치 아픈 논쟁쯤은 알아야 할 것 같아 어렵다는 생각부터 든다. 다른 종교를 갖거나 종교 자체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굳이 불교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종교적 측면보다는 불교가 우리 역사와 한국인의 심성, 가치관에 끼친 영향에 더 많은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서 색다른 한국사이며 그만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한국인 심성 저변에 흐르는 불교적 가치관

“그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다음 생에는…” 등 굳이 드라마나 영화, 웹툰이 아니더라도 윤회나 전생과 관련된 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요즘에도 차고 넘친다. 각 개인이 전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집단 무의식 한가운데에는 불교적 심성이 깊게 자리 잡았다. 반면 효와 충 등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치관의 상당수는 유교의 영향이 크다. 나아가 천당과 지옥이라는 관점에서 평소 착하게 살아야 하며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도덕관을 심어준 기독교는 서구 근대문명의 도입과 함께 우리 사회에 튼실하게 안착했다. 그뿐인가. 우리는 오랜 세월 아주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 풍수지리, 도교적 가치관, 무속신앙에도 친숙하다. 한마디로 우리는 온갖 종교적 심성이 어우러진 바탕 위에서 현실을 살아가며 각자 나름의 가치관을 정립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가 종교적 심성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한국사를 반만년의 역사라고들 한다. 구석기 신석기 철기 청동기 시대를 지나 강력한 국가 중심 시대를 거쳐 개인이 중심인 서구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태어나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한국 불교 역사는 얼추 1700여 년에 달한다. 이는 한국사 전체 기간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세월이다. 로마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을 받기까지 엄청난 박해와 시련에 시달렸던 것처럼 신라에 전파된 불교 또한 국가 차원에서 공인을 받기까지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차돈의 순교’가 대표적이다. 이후 한국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거의 천년 동안 순항하면서 왕족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고려에 대한 인식인데, 고려시대에 불교가 매우 존숭되고 융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통치이념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려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으며 도교와 풍수, 무속신앙 등이 탄탄한 사회적 저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현재 한국 불교의 원형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간화선의 선양과 임제법통 계승, 선교겸수 지향과 화엄교학 중시, 염불정토신앙의 대중적 확산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불교 전통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는 고려와 오늘날의 불교를 잇는 매개이자 가교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인의 심성과 세계관의 밑바탕에는 흔히 생각하듯 유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불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전통서 불교의 정당한 지분을 찾는 과정이며, 한국의 역사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는 데 많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조선시대에도 왕실과 중앙의 권세가, 하급관리와 아전, 각 지역의 토호 등 다양한 계층서 불교를 믿었다. 물론 국가의례와 양반 사대부 계층의 가례에서 불교식 제의와 내세관은 설자리를 잃었고, 유교의 제례와 사후 관념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어갔음은 분명하다. 조선 후기에 들어 유교사회가 본격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삶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유교가 힘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세의 문제에서 불교가 가진 오랜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유교가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긴 어렵다. 조선 사람들 대다수는 업과 윤회로 상징되는 불교의 내세관을 잊지 않았고, 망자의 명복을 빌거나 정토로의 왕생을 꿈꾸는 이에게 불교는 내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었다. 성리학적 관념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유교식 제의가 일반 대중에까지 파급력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한국 불교의 도전과 미래

한국 불교는 고려 말과 조선 초, 조선 후기와 미군정기에 이어 1980년 10.27 법난까지 숱한 도전과 시련을 겪어왔다. 고려 말에는 사회적 분열과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 백성의 살림이 날로 피폐해졌고, 불교계는 승려 수나 경제적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인적 수준이 하락하고 도덕적 타락이나 불감증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고려 말 불교계의 모습은 교학 연구나 선 수행의 풍토 대신 기복과 공덕신앙이 중심이 되었고, 교단은 자정능력을 잃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했다. 한편 유교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온힘을 쏟던 조선 초에는 개창세력인 정도전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집중포화를 받아야 했다. 조선 후기에는 당시 유학자들조차 내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불교의 별파로 인식한 천주교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으나 ‘전통의 안’에 있던 불교가 효의 실천을 현세에서 내세로까지 연장하고 국왕의 장수,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함으로써 천주교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가 하면 1945년부터 3년간 미군정 통치기에 여러 특혜를 누리면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키운 기독교가 또 하나의 강력한 도전세력으로 떠올랐다. 오랫동안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 이승만 등 일부 정치가들은 미군정과 기독교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기독교 편향 정책은 계속되었다. 이후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의 신군부세력이 군사쿠데타를 마무리하고 정권을 잡는 과정서 조계종 총무원 측이 군사정권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사를 밝히자 흉흉하던 민심을 다잡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좋은 먹잇감으로 찍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매도당했다. 전통종교인 불교에 비해 천주교와 개신교는 로마 교황청이나 미국 등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 또 사회 지도층 인사와 유력자 중에 기독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거나 막무가내로 건드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불교는 신군부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거대 종교였고 비리 혐의를 씌우고 정화의 명분을 찾는 데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일어난 것이 바로 10.27 법난이었다.

이처럼 한국 불교는 찬란하게 융성했던 시절과 고달픈 시련의 과정을 모두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밀레니엄 시대라 불리는 20세기 이후로는 과학의 눈부신 발달 덕에 새로운 ‘세계종교’가 탄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 전통종교들도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로 ‘과학’을 꼽기도 하고 현실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작금의 신이 바로 ‘돈’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진실이 과연 무엇이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장밋빛이라고 쉽게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저자는 다음과 같은 조언으로 이 책을 마무리 짓는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불교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달려 있다. (중략) 불교는 1700년 동안 한국인의 심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왔고 DNA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 있는 주류 종교로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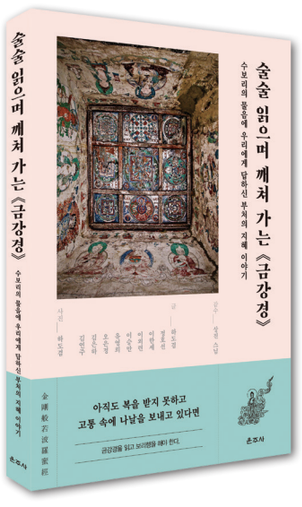
시야를 확대해서 보면 지난 2500년간 불교는 고도의 사유체계이자 보편적 세계종교로서 아시아 각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인류 문명사에 크게 기여했다. 수많은 붓다의 계승자들은 종교적 경건함과 구도의 치열함으로 무장한 채 신앙과 수행, 교화에 생애를 바쳤다. 불교의 미래적 가치는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아올린 업과 인연에서 출발하며, 그 종교문화의 밝은 빛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다. 한국 불교도 21세기 불교의 세계화와 인류 문명의 길 안내자 역할에 동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할 때다.

▲저자 김용태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도쿄대학 인도철학불교학과서 수학하며 중국 송대 화엄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사상사학회·불교학연구회 연구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임제법통과 교학전통〉(2010), 〈Glocal History of Korean Buddhism〉(2014), 〈토픽한국사 12〉(2016), 〈韓國佛教史〉(2017, 일본 춘추사) 등이 있으며, 〈조계고승전〉(2020)을 함께 번역했다.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2007), 〈테마 한국불교(1~10)〉(2013~2021), 〈The State, Religion, and Thinkers in Korean Buddhism〉(2014), 〈East Asian Buddhism and Modern Buddhist Studies〉(2017) 등을 비롯해 스무 권이 넘는 불교학술서를 기획하고 함께 펴냈다.

불자와 이웃종교인들이 함께 만든 금강경!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복잡한 해설 없이 경문을 읽어 가며
이해하고 깨우치는 특별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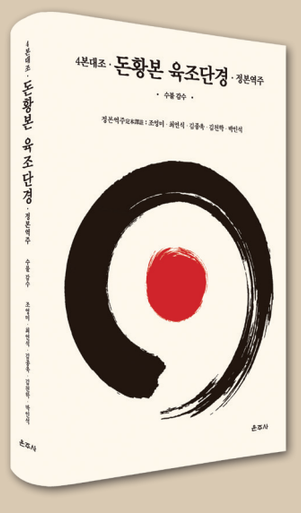
- 9명의 역자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세존과 수보리 장자의 대화를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번역하였다.
-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히말라야 문화권의 풍광과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하도겸 정호선 이한세 이외련 이승만 유영희 오은정 김은하 김연주 저
신국판 변형/무선/264쪽/값 16,000원

육조혜능의 본음에 가깝게 살아난 육조단경!

4본대조 돈황본 육조단경 정본역주

『육조단경』의 원음을 살리기 위해
정본화定本化한 세계 최초의 작업!



- 육조단경의 다양한 판본 중 가장 고층에 속하는 ‘돈황본’의 4종의 이본을 철저히 교감하여 원텍스트에 가장 가깝게 재구성하였다!
- 한문학, 불교학, 사학, 철학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수불스님이 감수를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조영미 최연식 김종욱 김천학 박인석 정본역주/수불 감수
국판 변형/양장/344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